

鹿茸의 生産, 流通, 消費에 관한 연구

金 貞 注(建國大 教授)

本稿는 12月3日 全國 養鹿人 大會에서 發表한 研究 論文입니다.

1. 머 리 말

우리나라는 GATT의 주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에서 農·畜産物 輸入을 전면적으로 開放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삶의 발판을 잃게 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農·畜産物에 대한 輸入 開放을 저지하는 일과 함께 수입개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살아 남을 수 있는 所得 作目を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所得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신을 위한 식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녹용은 오래전부터 보약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사슴 飼育이 農家の 비상한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부터 사슴의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슴의 가격이 暴落하고 외국산 녹용이 반입되면서 전국의 7,000여 양록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雪上加霜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슴을 사육한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표준 사양기준마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슴 사육 현황과 녹용의 유통 가공처리 및 소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 될것이다.

2. 사슴의 飼育現況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長壽를 상징하는 것으로 十長生이 있는데 십장생 10가지의 것 중에서 짐승으로서는 학, 거북, 사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육지에서 사는 짐승은 사슴하나 뿐이다. 그 만큼 사슴은 옛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飼育이 시작된 것이 解放이후로 추정되는데 그것도 6·25를 맞아 거의 滅種되다시피하고 최근에 국내에서 사육되는 것들은 1955년 이후 대만,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것들의 후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7천여 農家에서 12만頭的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슴은 일부 부유층의 관상용이나 보신을 위한 家內 소비용으로 사육되어 온 정도이었다. 이는 사슴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서 일반 농가가 사육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 꽃사슴 암컷 한마리에 650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침체 등으로 '85년 이후 사슴가격은 暴落을 거듭하여 100만원대까지 하락된 이후 일반 농가들의 사슴사육이 부쩍 늘어 오다가 최근 사슴 수입이 자유화되자 사슴 飼育을 증가세를 멈추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슴의 품종은 80% 정도가 꽃사슴이고 나머지 20%가 레드디어와 엘크

종류이다. 이처럼 농가가 레드디어나 엘크보다 꽃사슴을 選好한 것은 엘크種은 1,000만원을 넘는 고액의 가격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사양관리가 꽃사슴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사슴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 두당 녹용생산량이 적은 꽃사슴 보다는 녹용생산량이 많은 엘크나 레드디어 사육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3. 鹿茸의 생산과 消費 현황

1) 國產 鹿茸의 生産과 消費

현재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녹용은 농장에서 절취하자마자 바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生鹿茸 상태가 거래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생녹용 거래에 비하여 건조녹용 거래가 적은 것은 사육농가 단위에서 녹용의 건조 시설을 단독으로 갖추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생녹용이 건조되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사슴사육 농가가 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녹용의 유통과정을 보면, 鹿茸도 일반 상품처럼 국산보다는 수입품이 우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식이 소비자간에 팽배하여 있고 이를 약용한 일부 漢醫院에서는 가격이 싼 수입녹용만 取扱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만 하더라도 꽃사슴 1마리에서 鹿茸 2뿌리와 鹿血을 축출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면 약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1992년에 들어서는 1991년의 鹿血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1992년의 사슴輸入자유화, 경기침체 등이 겹쳐서 1992년 7월 현재 60만원을 下回할 뿐 아니라 그나마 願買者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녹용은 그 특성상 適期에 절각시키지 않으면 鹿角으로 변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下落하므로 販路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녹용을 잘라주지 않으면 안된다. 녹용의 판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녹용생산이

부적합한 사슴은 蒸湯用으로 판매되기도 한데 그럴 경우 그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양록 농가에게 더욱 큰 손실을 주게 된다.

2) 輸入녹용의 유통과 소비

녹용의 수입 실적을 보면 1987년 이후 꾸준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는 바 1991년에 우리나라에 輸入된 녹용은 83,000kg(260억원어치) 정도가 정식 통관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치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密輸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된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내 사슴사육 頭數의 꾸준한 增加에도 불구하고 녹용의 自給率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입량까지를 포함한다면 自給率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녹용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한국 의약품 수출입협회 산하 「수입한약재 품질 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여명의 鑑別委員들이 2인 1조 輸番制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녹용의 색깔, 냄새, 형상에 대한 합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理化學的 검사보다는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녹용의 수입 가격을 보면 산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양(37.5kg)당 약 12,000원 정도로 구입되어 40,000-50,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산 녹용의 양당 가격을 100,000원 수준으로 볼때 40-5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녹용 총 輸入量의 60%정도는 뉴질랜드產으로 대부분 레드디어種의 녹용이다. 한편 중국은 梅花鹿과 馬鹿의 녹용을 생산하며 미국 및 캐나다는 대형종인 엘크사슴의 녹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들어 수입량이 점차 늘어나는 소련산 추운 튼드라지역에서 서식하는 馴鹿의 髀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1>

년도별 원천별 녹용 공급현황

(단위 : 건녹용기준kg)

년 도	년간 녹용 공 급 량	원 천 별 공 급 량		자급율 (%)
		국산녹용	수입녹용	
1977	3,743	743	3,000	19.9
1978	8,980	939	8,041	10.5
1979	12,503	1,245	11,258	9.9
1980	21,153	1,579	19,574	7.5
1981	21,905	2,005	19,901	9.2
1982	39,680	2,548	37,675	6.4
1983	28,891	3,227	25,664	11.2
1984	28,005	3,992	24,013	14.3
1985	25,026	5,199	19,827	20.8
1986	29,201	6,601	22,600	22.6
1987	52,728	7,328	48,400	13.9
1988	59,258	9,258	50,000	15.6
1989	61,257	11,801	49,456	19.3
1990	63,670	14,982	48,688	23.5
1991	101,979	19,005	82,974	18.6

주1) 수입량은 대한의약품 수출입협회의 자료에 의한.

주2) 국산녹용 생산량은 당해년도의 사슴사육 頭數에서 추정.

자료 : 한국양록협회, 1992

3) 국산 건녹용 생산에 대한 法律的 규제내용

사슴은 畜産法 施行規則 제1조 1항에 의거 기타 가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현재 사슴의 사육 농가수 (7,000호)나 사육규모(12만두)로 보아 기타 가축이 아닌 정규 가축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슴이 기타 家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슴 농가는 각종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법률적 제약은 녹용에 대한 애매한 분류이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슴이 일단 축산법에 의거 기타 가축으로 분류됨으로써 사슴뿔인 녹용이 사슴의 머리에 붙어있을 때는

사회 통념상 축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사슴의 머리에서 절단한 후 단순한 건조만 해도 약사법에 의하여 醫藥品으로 분류되어 그 소관 부서가 농림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바뀌게 된다.

生藥 規格集에 의하면 건조녹용은 醫藥品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건조 가공하기 위해서는 原料 醫藥品 製造業 許可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조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원료 의약품 제조허가 획득이 쉽지 않고 설령 제조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완제의 약품이 아닌 원료 의약품으로 허가 되므로 제약회사

밖에 판로가 없는 셈이다. 설령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중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판로를 사실상 봉쇄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중광고를 맹신하는 분위기에서 대중광고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 선전에 의한 국산 녹용의 수요증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산 녹용의 가격이 수입녹용에 비해 비싼데다가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광고조차 할 수 없으므로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산녹용에 대하여 내려진 또 하나의 불리한 규제는 유통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국산 녹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출협회의 官能 檢査를 마친후 통관만 되면 그만이나 국산 녹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서 성분이 미달되면 허가 취소 등 行政處分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산 녹용에 대해서는 이렇듯 없이 관대하면서 國産 녹용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도하에서는 국산녹용과 수입녹용이 처음부터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녹용의 불리한 대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즉, 보건사회부의 녹용에 대한 규정도 확실하지 않다. 녹용을 첨가한 健康食品중 녹용첨가 정도에 따라 食品과 藥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녹용이 畜産物로 분류되어 농림부에서 총괄하여 일관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세계 최대의 녹용 소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녹용이 약인지 식품인지 축산물인지조차도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녹용에는 부과되는 세금도 과중하다. 녹용에 부과되는 特別 消費稅, 양록업자에게 부과되는 所得稅,

거기다 단순가공만 해도 附加價値稅까지 가산되어 鹿茸粉末과 같은 단순 가공품의 경우 25% 정도의 세금이 가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산에서 사슴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고 飼育舍가 200평 이상이 넘으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로워 기존 사슴농가중 飼育許可를 받고 사슴사육을 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養鹿業者들이 주장한대로 녹용을 축산물로 규정하고 농가단위에서도 단순가공이 가능하며 녹용 가공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한의사들이 될 것이며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도전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은 내부로부터의 갈등이다. 즉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養鹿인들이 한데 뭉쳐 공동대처해도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養鹿업계는 이를 주도할 求心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 사슴의 輸入自律化와 그 影響

국내 사슴산업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91년 초 사슴 수입자 유화가 발표되자 사슴 수입을 추천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였다. 즉, '91년 후반기에 있었던 '92년도 사슴수입 신청 頭數는 무려 32,000마리를 넘었다. 이와같이 수입수요가 급증한 것은 외국산 사슴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입만 하면 큰 差額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레드디어 자루키 頭당 FOB가격 기준으로 7만원~10만원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150만원을 呼價하니 수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행히 '92년초 수입업자가 自律的으로 수입을 規

制하는 決意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여명을 대상으로 1,000마리에 한하여 '92년 6월중 수입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슴가격은 계속 暴落을 하고 있으며 사슴 수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하락폭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사슴 施勢는 '85년 大暴落 이후 꾸준히 上昇勢를 보여오다가 1991년 3월 수입 자유화 조치

선언 이후 폭락을 거듭해 다시 '86년의 가격으로 還元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암사슴의 가격이 폭락을 주도하였는데 꽃사슴의 '90년 암컷 1마리에 105만원 하던 것이 '92년 9월 현재 75만원에, 레드디어의 경우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엘크의 경우, 1,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거래는 거의 없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표2>

年度別 사슴時勢(成鹿의 年平均 時勢)

(단위 : 만원 / 두)

년 도 별	꽃 사 슴		레 드 디 어		엘 크	
	♂	♀	♂	♀	♂	♀
1986	90	110	250	300	850	900
1987	80	90	250	270	800	700
1988	90	80	230	200	850	750
1989	100	90	300	280	900	800
1990	150	120	450	450	1,200	1,200
1991	105	85	275	250	1,000	820
1992. 9	110	75	240	200	900	700

자료 : 한국양록협회, 1992

5. 養鹿農家の 收益性 分析

양록 농가의 궁극적 目的은 가능한 많은 收益을 올리는데 있다. 그런데 그 수익은 사육 規模, 사슴의 種類, 經營者의 기술수준, 판매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양록농가의 平均 수익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現在 우리나라 농가에서 100餘坪의 사슴사육장에서 30餘頭의 사슴을 副業형태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예상 소득을 計算함으로써 양록 농가의 양록 收益性을 概括的이나마 파악할 일은 앞으로의 政策 立案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꽃사슴 30두(육성 중인 것 10두 포함)를 사육하는 농가를 假想하여 粗收益을 계산하면 30두중 育成成鹿인 10頭를 제외한 20頭가 肉용을 生産한다고 보고 1頭당 肉용판매 價額을 600千원으로 假定할 경우 年間 약 12,000千의 粗收益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예상 비용은 조사료비 4,497千원, 농후사료비 1,096千원, 시설 및 사슴의 각각상각비 31千원, 기타 약품비 1천원 포함 5,624千원이 되어 조수익에서 經營비를 차감하면 6,376千원의 所得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에는 같은 사육장 100坪기준 子鹿 5頭, 成鹿 10頭의 레드디어를 사육할 경우 9,183千원의 所得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엘크도 100坪의 사육장에서 子鹿은 3頭, 成鹿을 7頭 사육할 경우 9,619천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소득 중에는 자가 노력에 대한 보수, 자기 자본에 대한 利子, 자가 토지에 대한 地代가 종합되어 있음을 고려할때 그렇게 낮은 수준만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1991년의 평균 농가의 年間 소득이 12,000천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 소득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슴 사육은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나 濃厚飼料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다른 영농을 영유하면서 副業 형태로 사슴사육을 할 경우 이러한 소득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生業의 발판을 잃어가고 있는 농가에게 그나마 所得源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물론자원의 效率의 활용이라는 巨視의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양록산업의 政策的 지원의 當爲性을 더욱 正當化될 수 있을 것이다.

〈표3〉

가상 농가의 예상소득

(단위 : 頭 / 坪 / 千원)

		꽃 사슴	레드디어	엘 크
사육장 규모	평 수	100	100	100
	성 록	20	10	7
	자 록	10	5	3
	합 계	30	15	10
예 상 조 수 익		12,000 ¹⁾	15,000 ²⁾	17,500 ³⁾
조 사 료 비		4,497	4,160	4,160
농 후 사 료 비		1,096	454.5	1,033
감 가 상 각 비		31	1,111.5	2,621
비 용 합 계		5,624	5,817	7,814
예 상 소 득		6,376	9,183	9,619

주 : 1) 두당녹용판매수입 600천원 × 20두

2) 두당녹용판매수입 1,500천원 × 10두

3) 두당녹용판매수입 2,500천원 × 7두

6. 사슴飼育 實態 調査

1992년 수입자유화가 단행된 이후 국내 사슴가격은 下落을 계속하고 있으며, 鹿茸 또한 農家單位에서의 販路가 막혀 있을 뿐 아니라 低質 輸入녹용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양록 농가의 사슴사육 實態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導出하여 代案을 提示하는 일은 매우 시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양록협회가 추천한 101개 사슴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면접 및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40-50代의 사슴사육 이외의 농사경력 10년이상의 사육자가 대부분이었다.

1) 飼育規模 및 形態

應答者의 사육규모를 보면, 꽃사슴 10-30두 규모가 35.7%, 레드디어 1-10두 규모가 25.8%, 엘크 1-10두 규모가 2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꽃사슴만 사육하는 농가는 81.2%로 꽃사슴 위주의 사육이 일반적이다.

〈표4〉 사슴 사육 규모

두수	품종	꽃사슴	레드디어	엘 크
100두 이상		1%(1)	0	0
50두 이상		7.9%(8)	0	0
30두 이상		16.8%(17)	1%(1)	1%(1)
10두 이상		35.7%(36)	5.9%(6)	19.8%(20)
1두 이상		19.8%(20)	25.8%(26)	28.7%(29)
미 사육		18.8%(190)	67.3%(68)	50.5%(51)
계		100%(190)	100%(101)	100%(101)

()내는 응답자 수

응답자의 사슴사육 經歷을 보면, 5-10년이 38.6%, 10-15년이 22.0%으로 5-15년이 61.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사육형태를 보면 副業형태가 64.4%, 專業형태가 35.6%로 대부분의 농가가 耕種 농업이나 축산에 부수적으로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飼育場 규모는 100坪 미만이 4.0%, 500坪 이하가 47.8%, 1000坪 이상이 30.7%로 나타나 사육장 규모와 사육규모가 比例한다고 보았을 때 사육규모는 零細한 것으로 보여진다.

2) 飼料의 調達

사슴의 健康과 정상적인 反芻活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粗飼料 급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슴사료에 이용되는 조사료로는 山野草, 樹葉類, 牧草類, 볏짚류 등이며, 겨울철에는 칩 건초, 떡갈잎 건초, 아카시아 건초, 알팔파큐브, 도토리, 벧

짚, 옥수수 사일리지등이 利用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조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自給하는 농가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조사료만으로 부족되기 쉬운 영양분은 濃厚飼料로 보충되어야 하는데 육성이나 중송아지용 사료가 주로 이용되고 사슴 전용사료는 아직 이용이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사슴 飼養標準이 없이 각 농가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사육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사슴 사양표준의 開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슴사육에 쓰이는 濃厚飼料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사슴 전용 配合飼料를 쓴다고 응답한 농가가 19.8%, 가축용 배합사료, 68.3%, 기타사료 11.9%로 응답하였다. 사슴전용 사료의 구입이 배합사료에 비하여 이처럼 저조한 것은 두 사료간의 質的차이가 별로 없거나 사슴전용 사료가 가격에 비하여 質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료로는 콩, 껏묵 등을 주로 쓴다고 응답하였다.

越冬用 粗飼料로서는 29.7%가 국내사료를 61.4%가 수입사료를 쓰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農家가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人件費의 上昇, 노동력의 도시 集中化에 따른 乾草 생산의 어려움으로 국산보다 수입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生半비 절감에 效果的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수입사료는 주로 中國產과 北韓產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월동용 조사료 중 自給飼料와 購入飼料의 비율을 보면, 완전자급하는 농가는 21.8%, 자급 대 구입 比率 2:8이하로 구입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농가는 29.7%, 자급대 구입비율 6:4이하인 농가는 전체의 63.4%로 나타나 월동용 조사료는 구입사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5〉 농후 사료의 종류

종류	사슴용 배합사료	가축용 배합사료	기타* 다른사료	계
비율	19.8% (20)	68.3% (69)	11.9% (12)	100% (101)

()내는 응답자 수

주: * 기타 다른사료에는 중·큰송아지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표6〉 월동용 조사료의 종류

구분	국내사료	수입사료	기타사료	계
비율	29.7% (30)	61.4% (62)	8.9% (9)	100% (101)

()내는 응답자 수

〈표7〉 월동용 조사료중 자금 사료의 비율

구분	20%이하	40%이하	60%이하	80%이하	100%이하	계
비율	29.7% (30)	14.8% (15)	18.9% (19)	14.8% (15)	21.8% (22)	100% (101)

()내는 응답자 수

3) 情報의 習得

사슴사육에 필요한 飼養技術이나 녹용이나 사슴 판매에 따르는 가격 정보를 어디서 習得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중매체(TV, R, 신문)(11.9

%), 기존 사육농가(28.7%), 專門書籍(22.8%), 協會나 組合의 敎育(27.7%), 기타(8.9%)로 응답하였으며 전문서적으로는 월간 사슴, 한국양육, 농축수산신보, 양육회보 등을 거명하였다.

〈표8〉 사슴의 사양기술 및 가격정보 습득 경로

구분	대중매체	기존사 육농가	전문서적	협회나조합 의 敎育	기타	계
비율	11.9% (12)	28.7% (29)	22.8% (23)	27.7% (28)	8.9% (9)	100% (101)

()내는 응답자수

* 전문서적은 주로 월간사슴, 한국양육, 축산신보, 양육회보등을 구독

* 기타 사항에서는 소사육전문잡지(바이보), 타 가축에서 습득한 기술, 자기자신의 기술개발

4) 鹿茸의 販賣

녹용의 販賣處에 대한 질문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 93.0%, 중간상인이 5.0%, 漢醫院이나 藥局이 2.0%로 응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녹용의 주된 판로인 한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판매가 부진한 것은 수입녹용과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국산녹용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녹용판매의 어려움점으로는 소비자들의 국산 녹용에 대한 疑懼心(30.1%), 녹용의 계절적 홍수출하(17.8%), 높은 녹용가격(13.9%), 乾燥 녹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5.9%), 其他(31.7%)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국산녹용

에 대한 의구심이 30%를 넘고 있는 이유는 국산 녹용에 대한 체계적인 弘報가 부족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녹용의 6-8월 홍수출하시 생녹용을 貯藏하기 위해서는 건조시설이 필요하나 녹용은 일단 건조가 되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일반농가가 乾鹿茸을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함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표 9> 녹용의 판매처

구분	실수요자	녹용중간사인	한의원, 약국	계
비율	93.0 % (94)	5.0 % (5)	2.0 % (2)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표 10> 녹용 판매의 어려운 점

구분	녹용가격이 너무 비싸서	녹용이 6-7월에 홍수출하 되기 때문에	건조 녹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의 국산녹용에 대한의구심	기타	계
비율	13.9 % (14)	17.8 % (18)	5.9 % (6)	30.7 % (31)	31.7 % (32)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5) 飼育管理

사슴 사육시 애로점으로는 녹용판로 확보 곤란(44.5%), 사슴가격의 불안정(29.7%), 사슴분양처 확보 곤란(11.9%), 사육기술 부족(3.0%), 자금부

족(2.0%), 기타(8.9%)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녹용 판매는 실수요자와 직접거래가 90% 이상이므로 규모를 확대할수록 수요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표 11> 사슴 사육의 애로점

구분	사육기술 부족	녹용판로문제	사슴분양처확보문제	자금부족	사슴가격불안	기타	계
비율	3.0 % (3)	44.5 % (45)	11.9 % (12)	2.0 % (2)	29.7 % (30)	8.9 % (9)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 기타 사항은 관리인 부족, 조사료 조달의 어려움, 그린벨트지역에서의 사육장 확대불가

切角 방법으로는 麻醉에 의한 절각이 73.3%로 가장 많고, 나무 切角場 이용이 25.7%, 신형 절각장 이용이 1.0%로 나타나 고정 시설이 필요없는 마취 절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슴에게 衝擊을 덜주는 新型절각장 이용이 1.0%정도로 未備한 것은 홍보의 미비로 신형 절각장의 성능에 대한 사육농가의 인식이 부족한데다가 가격이 비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2〉 절각 방법

구분	나무절각장	신형절각장	마취	계
비율	25.7 % (26)	1.0 % (1)	73.3 % (74)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6) 資本 및 勞動力의 投下

사슴농장의 總投資額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가 44.5%, 5천만원이상이 41.6%를 차지하고 500만원 미만도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의 투자액은 農場 設립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시 유의하여야 한다.

濃厚飼料의 하루 급여량은 10kg 미만이 11.9%, 50kg 이하가 37.7%, 50kg이상이 20.7%로 나타났다. 이는 농후사료 급여량은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등 품종과 사육두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슴사육에 필요한 하루 勞動時間은 4시간 이하가 56.4%이고, 10시간 이하가 37.7%, 10시간 이상은 6.0%로 나타나 사슴사육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슴이 疾病에 강하고 주위 환경변화에 適應力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양

〈표 13〉 사슴 농장의 총 투자액

구분	500만원 미만	500-1000	1000-5000	5000-1억원	1억원이상	계
비율	4.0 % (4)	9.9 % (10)	44.5 % (45)	26.7 % (27)	14.9 % (15)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관리가 필요없고 조사료를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력은 고정 노동력이 27.7%, 日當(隨時) 노동력이 10.9%, 자가 노동력이 61.4%로 자가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정

노동력 고용시에는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월 70만원 정도의 給料가 지불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약 100여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셈이 되므로 경영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농후 사료의 하루 급여량

구분	10 kg 미만	10-20	20-50	50-1000	100 kg 이상	계
비율	11.9 % (12)	23.7 % (24)	33.7 % (34)	19.8 % (20)	10.9 % (11)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표 15>

사슴 사육에 필요한 하루 노동시간

구분	0.5-1시간	1-2	2-3	3-4	4-5	5-10	10kg이상	계
비율	2.0 % (2)	5.9 % (6)	19.8 % (20)	28.7 % (29)	19.8 % (20)	17.9 % (18)	6.0 % (6)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표 16>

원천별 노동력

구분	고정고용노동력	일당고용노동력	자가 노동력	계
비율	27.7 % (28)	10.9 % (11)	61.4 % (62)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7) 輸入自由化에 대한 反應

사슴수입 自由化 대체방안으로는 양육업자의 自發的인 輸入抑制가 33.6%로 가장 높았고, 수입사슴과 국내사슴과의 現격한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生産費節減이 28.7%로 다음이었으며 녹용 유통개선도 20.8%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밖에 生녹용 가공기술 개발, 녹용가공 법령개정, 소비 촉진, 사양기술개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에서는 우수 種鹿과 低質 수입사슴을 구별해주는 公認

機關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사슴수입 自由化의 影響을 묻는 質問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73.2%를 차지하고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12.9%,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4.0%, 불투명하다는 견해는 9.9%로 나타나 86.1%가 수입자유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표 17>

사슴 수입 자유화의 대처 방안

구분	생산비 절감	사양 기술 개발	녹용 유통 개선	양록업자 의자발적 수입억제	생녹용의 가공기술 개발	녹용가 공법령 개정	소비 촉진	기타*	계
비율	28.7 % (29)	2.0 % (2)	20.8 % (21)	33.6 % (34)	4.9 % (5)	4.0 % (4)	4.0 % (4)	2.0 % (2)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주 : * 우수종록과 저질수입 사슴을 구별해주는 공인기관 필요

<표 18>

사슴 수입자유화에 따른 영향

구분	별로 큰 영향이 없다.	약간의 영향이 있다.	아주 큰 영향이 있다.	불투명하다.	계
비율	4.0 % (4)	12.9 % (13)	73.2 % (74)	9.9 % (10)	100 % (101)

()내는 응답자수

7. 鹿茸, 鹿血 및 사슴고기 消費形態

1) 표본의 특성

鹿茸에 대한 消費者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한 국민학교 4학년중 한개班을 임의로 선택하여 學父母에게 사전에 준비한 設問紙를 學生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44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年齡 분포를 보면 30代가 전체의 56.8%, 40代 43.2%로 구성되어 있었고 性別로는 남자가 25%, 여자가 75%로 대부분이 30代 여자에 의하여 응답한 내용임을 參考하여야 한다.

응답자의 20代 이하 子女數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가정이 9.0%, 2명인 가정인 72.7%,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18.3%로, 응답자의 대부분의 가정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職業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56.9%, 中規模 自營業者가 11.4%, 會社員이 9.1%, 敎職者

가 6.8%, 企業經營人이 4.5%, 公務員이 4.5%, 기타 다른 업종에 從事하는 사람이 6.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주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응답자의 家計 月 所得은 100萬원 이하가 18.3%, 100-150萬원이 40.9%, 150-200萬원이 29.5%, 200萬원이상이 11.4%로 대부분의 應答者 소득수준은 100-150萬원이었다.

요컨대 응답자는 대부분이 30-40대 주부로서 월간 소득이 150萬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2명의 20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2) 調查 結果

設問에 응한 44명을 대상으로 녹용 消費實態에 대하여 分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 應答者 44명중 88.6%인 39명이 녹용을 먹어 본 경험이 있고, 11.4%인 5명이 먹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용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용을 복용하는 목적으로는 병치료가 59%(32명)이고, 나머지 41% 정도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녹용 구입처는 漢醫院이 82.1%, 아는 사람이 12.8%, 사슴 農場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5.1% 정도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사육 실태 조사에서 대부분의 녹용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販賣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標本의 수가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녹용의 原產地를 알고 복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46.2%, “國產으로 알고

복용한다”는 경우가 48.7%, “輸入品으로 알고 복용한다”는 경우가 5.1%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녹용의 원산지를 모르거나 국산녹용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녹용을 주로 한의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녹용은 거의가 輸入品임을 고려할때 이러한 응답결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보이며 이 또한 標本의 수가 적기 때문이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막연히 국산품을 애용하여야 한다는 道德的 潛意識에 의한 응답 결과로 풀이된다.

<표 19>

녹용을 먹어본 경험과 그 목적

경험유무	응답자수	녹용을 먹는 목적			
		병치료	특별한 목적 없이	기 타	계
있다	88.6 % (39)	59.0 % (23)	33.3 % (13)	7.7 % (3)	1005 (39)
없다	11.4 % (5)				

()내는 응답자수

<표 20>

녹용 구입처 및 원산지 인식 정도

(단위 : %)

구입처	구분	한의원	사슴농장	아는사람	계
		비율	82.1 (32)	5.1 (2)	12.8 (5)
원산지	구분	국산	수입	모름	계
	비율	48.7 (29)	5.1 (2)	46.2 (18)	100 (39)

()내는 응답자수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수입녹용을 선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수입품이 좋아서”(48.7%), “국산녹용이 없어서”(7.7%), “販賣者が 수입품을 추천하기 때문에”(10.3%)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국녹용에 대한 막연한 선호 傾向이 녹용이 소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용 복용횟수는 매년 2회가 2.6%, 매년 1회가 15.4%, 2-3년에 1회는 15.4%, 지금까지 1-2회는 66.6% 순으로 나타나, 녹용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補身을 위해 복용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표 21>

수입 녹용의 선호 이유

(단위 : %)

구분	수입품선호	국산녹용없음	판매자가 추천	무관	계
비율	48.7 (19)	7.7 (3)	10.3 (4)	33.3 (13)	100 (39)

()내는 응답자수

<표 22>

녹용 복용 회수

(단위 :)

구분	매년 2회	매년 1회	2-3년 1회	지금까지 1-2회	계
비율	2.6 (1)	15.4 (6)	15.4 (6)	66.6 (26)	100 (39)

()내는 응답자수

매래의 소비를 豫測할 수 있는 녹용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매우 좋아한다”는 반응이 5.1%, “좋아한다”는 반응은 41.0%,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53.9%로 나타나 녹용을 선호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46%가 넘었다. 이로써 앞으로 녹용의 效能에 대한 홍보를 體系的으로 實施한다면 녹용의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녹용을 좋아하는 理由로는 殘病치료가 48.7%, 疲勞回復이 25.6%, 자녀의 成長 發育 促進 15.4%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자녀의 健康을 위하여 病을 앓

고 난후 回復次元에서 녹용을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었다.

<표 23> 녹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단위 : %)

구분	매우 좋아함	좋아함	그저그렇다	계
비율	5.1 (2)	41.0 (16)	53.9 (21)	100 (39)

()내는 응답자수

녹용을 選好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가 51.3%를 차지하여 現在의 녹용가격 수준이 消費者에게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사슴의 生産費

節減등으로 녹용가격이 下落하게 되면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녹용이 體質에 안 맞는다”는 반응도 12.8%나 되었다.

<표 24>

녹용 선호 이유

(단위 : %)

구 분	피로회복	잔병치료	성장발육	정력제	기 분 좋아서	기 타	계
비 율	25.6	48.7	15.4	2.6	5.1	2.6	100
	(10)	(19)	(6)	(1)	(2)	(1)	(39)

()내는 응답자수

<표 25>

녹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체질에 안맞음	내키지 않아서	비 싸 서	기 타	계
비 율	28.2	12.8	51.3	7.7	100
	(11)	(5)	(20)	(3)	(39)

()내는 응답자수

녹용 복용후의 健康狀態는 “좋아졌다”는 반응이 66.7%, “별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28.2%인 것으로 나타나 녹용의 效能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반응이 높았다. 鹿茸價格의 適正與否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消費者들은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95.4%로 나

타나 녹용의 소비자 價格이 소비자의 負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앞의 分析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가격이 비싸면 녹용의 소비가 抑制될 것이므로 앞으로 녹용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課題가 될 것이다.

<표 26>

녹용 복용 후의 건강상태

(단위 : %)

구 분	훨씬좋아짐	약간좋아짐	그저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 율	28.2	38.5	28.2	5.1	100
	(11)	(15)	(11)	(2)	(39)

<표 27>

녹용의 가격에 대한 반응

(단위 : %)

구분	너무 비쌌	비싼 편	그저그렇다	모르겠다	계
비율	56.8 (25)	38.6 (17)	2.3 (1)	2.3 (1)	100 (44)

()내는 응답자수

앞으로 녹용 消費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늘리겠다”는 反應이 77.3%, “줄이겠다”는 反應이 9.1%, “잘모르겠다”는 反應이 13.6%로 나타나 앞으로 녹용소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데, 녹용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아직 選好되고 있으나 그 가격에 대해서는 不滿을 표시하였고, 앞으로 녹용 소비는 價格引下가 可能하다면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녹용 소비에 대한 앞으로 계획

(단위 : %)

구분	더많이소비	지금 수준	소비 자제	소비하지 않겠다	잘모르겠다	계
비율	15.9 (7)	61.4 (27)	2.3 (1)	6.8 (3)	13.6 (6)	100 (44)

()내는 응답자수

8. 맺는 말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鹿茸産業은 사슴 輸入 자유화 조치로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양록업을 소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종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사슴 사육자가 녹용을 乾操 加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이 농장에서의 실수요자에 대한 생

녹용의 直販만을 가지고는 양록농가의 수익을 保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녹용이 特別 消費稅 撤消, 低質 수입녹용의 流通防止, 무분별한 사슴 輸入 抑制, 사슴 產物 流通의 體系化등의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양록인은 양록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자육 : ♂ 140만원 성록 : ♂ 200만원
 ♀ 130만원 ♀ 180만원

합계 : 2,575만원

마리당 사슴가격 이자 : 206,000원

(2) 감가상각비

철망시설 : 1평×5,000원×50평=250,000원

파이프×4,100원×15개= 61,500원

합계 : 311,500원

내구년수 15년÷311,500원=20,766원

15마리÷20,766원=마리당 1,384원

사슴감가상각비 : 800,000원÷15년= 53,333원

(3) 사 료

조사료

성록 최대 : 3.0kg /일 /두×365×10두=10,950kg

최소 : 1.7kg /일 /두×365×10두= 8,760kg

평균 : 9,855kg

자육 최대 : 2.2kg /일 /두×365×5두= 4,015kg

최소 : 1.8kg /일 /두×365×5두= 3,285kg

평균 : 3,650kg

조사료 비용

최대 : (10,950kg+4,015kg)×1.1×280원

=4,609,220÷15두=307,281원

최소 : (8,760kg+3,285kg)×1.1×280원

=3,709,860÷15두=247,324원

평균 : 277,302원

농후사료

성록 최대 : 1.0kg /일 /두×365×10두=3,650kg

최소 : 0.6kg /일 /두×365×10두=2,190kg

평균 : 2,920 kg

자육 최대 : 0.6kg /일 /두×365×5두=1,095kg

최소 : 0.4kg /일 /두×365×5두 =730kg

평균 : 912kg

농후사료 비용

최대 : (3,650kg+1,059kg)×1.1×210원

=1,096,095÷15두=73,073원

최소 : (2,190kg+ 730kg)×1.1×210원

=674,523÷15두=44,968원

평균 : 59,020원

(4) 약품비 : 5,500원 (Rumpun 1 vial사용)

(5) 자가 노력비

[(4시간 /일×365)÷10시간]

×18,000÷15두=175,200원

합계 : 최대 : 821,771원

최소 : 733,709원

평균 : 777,740원

생녹용 80냥 기준 가격(생산원가)

냥당 최대 : 10,272원

최소 : 9,171원

평균 : 9,721원

3) 엘크디어(사육장 100평, 사슴 10두 기준)

(1) 사슴가격

자육 : ♂ 800만원

성록 : ♂ 500만원

 ♀ 700만원

 ♀ 450만원

합계 : 6,700만원

마리당 사슴가격 연이자 : 804,000원

(2) 감가상각비

철망시설 : 1평×5,000원×50평=250,000원

파이프×4,100원×15개= 61,500원

합계=311,500원

내구연구 15년÷311,500원=20,766원

10마리÷20,766=마리당 2,076원

사슴감가상각비 : 4,000,000원÷15년=260,000원

(3) 사 료

조사료

성록 최대 : 4.5kg /일 /두×365×7두=11,497kg

최소 : 3.5kg /일 /두×365×7두= 8,942kg

평균 : 10,219kg

자록 최대 : 3.2kg /일 /두×365×3두= 3,504kg

최소 : 2.8kg /일 /두×365×3두= 3,066kg

평균 : 3,285kg

조사료 비용

최대 : (11,497kg+3,504kg)×1.1×280원

=4,620,308÷10두=462,030원

최소 : (8,942kg+3,066kg)×1.1×280원

3,698,464÷10두=369,846원

평균 : 415,938원

농후사료

성록 최대 : 1.6kg/일 /두×365×7두= 4,088kg

최소 : 1.2kg /일 /두×365×7두=3,066kg

평균 : 3,577kg

자록 최대 : 1.0kg /일 /두×365×3두=1,095kg

최소 : 0.6kg /일 /두×365×3두= 657kg

평균 : 876kg

농후사료 비용

최대 : (4,088kg+1,095kg)×1.1×210원

=1,197,273÷10두=119,272원

최소 : (3,066kg+657kg)×1.1×210원

=860,013÷10두=86.001원

평균 : 102,863원

(4) 약품비 : 5,500원 (Rumpun 1 vial사용)

(5) 자가 노력비

[(4시간 /일×365)÷10시간]×

18,000÷10두=262,800원

합계 : 최대 : 1,922,799원

최소 : 1,796,888원

평균 : 1,851,843원

생녹용 200냥 기준 가격 (생산원가)

냥당 최대 : 9,613원

최소 : 8,984원

평균 : 9,299원

(주) 1. 꽃사슴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록구

입, 10년 생존후 도태시 최초 구입가격 보

상 가능

2. 농후사료비는 10%의 특수사료 비용 포함

가격

3. 사료비 계산시 10%의 도태율 계산